



# 만안사 전문 평가원화

편집: 자이오노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 천지간에 그 아니 느껴온가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지 백년이라  
 하물며 백년이 반듯기 어려우니  
 백구지과극(白駒之過郤)\*이요 창해지일속(滄海之一粟)\*이라  
 역려건곤(逆旅乾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벌어진 인생이 꿈의 몸 가지고서  
 남아의 하울 일을 역력히 다 하여도  
 풀 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없거든  
 어와 내 일이야 광음(光陰)\*을 헤어보니  
 반생이 채 못되어 육육(六六)에 돌이 없네\*  
 이왕 일 생각하고 즉금 일 헤아리니  
 번복도 측량없다 승침(昇沈)\*도 하도 할사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내 일이라 내 역시 내 몰라라  
 장우단탄(長吁短嘆)\* 절로 나니 도중상감(途中傷感)뿐이로다  
 부모생아 하오실 제\* 죽은 나를 나오시니  
 부귀공명 하려던지 절도고생 하려던지  
 천명이 기압던지 선방을 시험한지  
 일주야(日晝夜) 죽은 아해 홀연히 살아나네  
 평생길흉 점복할 제 수부강녕\* 가졌시니  
 귀양 갈 적 있었으며 이별수인들 있었으랴  
 빛난 채의(綵衣) 몸이러니 노래자를 호축하여  
 부모 앞에 어린 채로 시름 없이 자라더니  
 어와 기박(奇薄)\*하다 나의 명도 기박(奇薄)하다  
 십일세에 자모상(慈母喪)\*에 호곡애통 혼절(昏絕)하니  
 그때나 죽었으면 이때 고생 아니 보리  
 한 번 세상 두 번 살아 인간행락\* 하라던지  
 종천지통(終天之通) 슬픈 눈물 매봉 가절 몇 번인고  
 십 년 양육 외가은공 호의호식 그렸으랴  
 잊은 일도 만타마는 봉공무하(奉公無瑕) 함이로다  
 어진 자당(慈堂)\* 들어오셔 임사지덕(姪姒之德) 가지시니  
 맹모의 삼천지교 일마다 법이로다  
 증모의 투저(投杼)함은 날 믿어 아니시리  
 설리(雪裏)에 읍죽(泣竹)함은 지성이 감천이요  
 백이의 부마함은 효자의 할 바이로다  
 백리(百里)에 부미(負米)함은 효자의 할 바로다

- 안도환, 「만언사」 -

- \* 백구지과극: 인생이 덧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창해지일속: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역려건곤: 덧없고 허무한 세상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광음: 세월.
- \* 육육에 돌이 없네: 서른네 살이네.
- \* 승침: 인생에서 잘됨과 못됨.
- \* 장우단탄: 긴 한숨과 짧은 탄식.
- \* 부모생아 하오실 제: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 \* 수부강녕: 장수와 부유함과 건강한 운수.
- \* 기박: 기구하고 박복함.
- \* 자모상: 어머니의 죽음.

- \* 인간행락: 인생의 즐거움.
- \* 자당: 새어머니.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입신하여 양명(揚名)함은 문호의 광채로다  
 행세(行勢)의 으뜸 일이 글 밖에 또 있난가  
 동사고문 사서삼경 당음(唐音) 장편 송명(宋明) 시를  
 세세히 숙독하고 자자(字字)이 외워시니  
 읽기도 하려니와 짓긴들 아니하라  
 삼월춘풍 화류시와 구추황국 단풍절에  
 소인목객 벗이 되어 음풍영월 일삼을 제  
 당시(唐詩)의 조격이요 송명시(宋明時)의 재치로다  
 문여필(文輿筆)\*이 한가지라 어느 것이 다를손가  
 짓기도 하려니와 쓰긴들 아니하라  
 변화감제 부벽서와 사치공자 병풍서를  
 왕우군의 진체런가 조맹부의 촉제런가  
 여러 가지 잘하기로 일시재동\* 일컫더니  
 오매구지 요조숙녀 전전반측 생각하니  
 동방화촉(洞房華燭) 느껴간다 이십 전에 유실(有室)\*이라  
 유한정정 법을 받아 삼종지의 알았으니  
 내조(內助)에 어진 처는 성가(成家)할 징조로다  
 유인유덕 우리 백부 구세동거\* 효측하여\*  
 일가지내 한데 있어 감고우락 같이 하니  
 의식분별 뉘 아던가 세간구차 내 몰래라  
 입신양명 길을 찾아 권문귀택 어디어디  
 장군문하 막빈인가 승상부중 기실인가  
 천금준마환소첩(千金駿馬換小妾)은 소년 놀이 더욱 조타  
 자금맥상변화성(自矜陌上繁華盛)\*은 나도 잠간 하오리다  
 이전 마음 전혀 잊고 호심광홍 절로 난다  
 백마왕손 귀한 벗과 유협경박\* 다 따른다  
 무릉장대 천진교도 명승지라 알려지다  
 삼청운대 광통꾼들 노처리가 아닐런가  
 화조월석 빈 날 없이 주사청루\* 거닐 적에  
 만준향료 진취하고 절대가인 침닉하여\*  
 취대라군(翠黛羅裙) 고운 태도 청가묘무 희롱할 제  
 풍류호사 귀 뉘시고 주중선군\* 부러하라

- 안도환, 「만언사」 -

- \* 문여필: 글과 글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일시재동: 재주가 있는 신동.
- \* 유실: 부인을 맞이함.
- \* 구세동거: 집안이 매우 화목함을 이르는 말.
- \* 효측하여: 본받아 법으로 삼아서.
- \* 자금맥상변화성: 스스로 거리에서 호화스러운 차림을 뽐내는 것.
- \* 유협경박: 경박한 건달들.
- \* 주사청루: 술집, 기생집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침닉하여: 술이나 노름, 여자에 빠져.
- \* 주중선군: 술에 취한 신선.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사무심 잊었더니 일조홀연 양심 나데  
 소년놀이 그만하자 부모근심 깊으시다  
 맥상변화 자랑마라 구리화도 늦어간다  
 옛 마음 다시 나서 하던 공부 고쳐하여  
 밤을 새와 낮을 이어 일시불철 하난고야  
 부모봉양 하라던지 내몸 위한 일일는지  
 수삼년을 각고(刻苦)하니 무식지인 면(免)하거다  
 어와 바랐으라 꿈결에나 바랐으라  
 어락원에 들어가서 금문옥계\* 문을 열어 디미니  
 천(賤)하온 몸이 천문 근처 바랐으리  
 금의(錦衣)를 몸에 감고 옥식(玉食)을 베고 있어  
 부귀에 짜였으며 변화(繁華)에 잠겼세라  
 일진겸대(一陣兼帶) 삼사처는 궁임뿐이 아니로다  
 복과재생이라 소심봉공(素心奉公) 잘못하여  
 삭관퇴거\* 하온 후에 칠일옥중 지내오니  
 굶던 의복 무색하고 조흔 음식 맛이 없네  
 망극천은(罔極天恩)\* 가이 없어\* 희극환비 눈물 난다  
 어와 과분하다 천은도 과분하다  
 궁임겸대 망극천은(罔極天恩) 생각사록 과분하다  
 변화부귀 고쳐하고 금의옥식\* 다시 하여  
 장안도상(長安途上) 너른 길로 비마경구(肥馬輕裘)\* 다닐 적에  
 소비친척(素非親戚) 강위친(強爲親)\*은 예로부터 일렀나니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하니  
 입신도 되다하고 양명도 하다하리  
 만사여의\* 하였으니 막비천\*은 모를소냐  
 충즉진명(忠則盡命) 아랐으니 쇄신보국(碎身報國)\* 하라던지  
 줄부귀가 불상이라 곤마복중\* 되것고야  
 극성즉필패하고 흥진즉비래\*니라  
 다 오르면 내려오고 가득하면 넘치나니  
 호사가 다마하고\* 조물이 시기한지  
 인간작죄 많이 하여 화전충화(花田衝火)\* 되었는지  
 청천백일 맑은 날에 뇌성벽력 급히 치니  
 삼훈칠백 날아나서 천지인사 아올소냐  
 여불승의(如不勝衣) 약(弱)한 몸에 이십오근 칼을 쓰고  
 수쇄족쇄 하온 후에 사옥 중에 드단말가  
 나의 죄를 헤아리니 여산여해 하겠고야\*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평생일심 원하기를 충효겸전 하자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것다  
 회서자이(悔逝者而) 막급(莫及)이라 뉘우친들 무삼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식록지신(食祿之臣)\*이 죄 짓자 하라마는  
 대액(大厄)이 당전하니 눈조차 어둡고나  
 마른 섭흘 등에 지고 열화(烈火)에 들미도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일명(一命)을 꾸이오셔 해도(海島)에 보내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지록 망극하다

- 안도환, 「만언사」 -

- \* 금문옥계: 금으로 된 문과 옥으로 된 계단. 궁궐을 비유하는 말.
- \* 삭관퇴거: 벼슬을 빼앗김.
- \* 망극천은: 임금의 은혜.
- \* 가이 없어: 끝이 없어.
- \* 금의옥식: 좋은 옷과 음식.
- \* 비마경구: 호화로운 옷.
- \* 소비친척 강위친: 친척이 아니어도 친해질 수 있음.
- \*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됨.
- \* 막비천: 임금의 은혜.
- \* 쇄신보국: 몸을 부수며 나라에 충성함.
- \* 곤마복중: 처지가 위태로움.
- \* 흥진즉비래: 흥이 다하면 슬픔이 찾아옴.
- \* 호사가 다마하고: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많고.
- \* 화전충화: 젊은이의 앞을 막거나 그림자를 이르는 말.
- \* 여산여해 하겠고야: 산과 바다 같구나.
- \* 식록지신: 나라의 녹봉(祿俸)을 받는 신하.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두에 배를 대어 부모친척 이별할 제  
 슬픈 눈물 한숨 소리 막막수운(漠漠愁雲) 머무는 듯  
 손잡고 일은 말삼 조히 가라 당부하니  
 가삼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소냐  
 여취여광하여 눈물도 하직이라  
 강상에 배 떠나니 이별 시(時)가 이때로다  
 산천이 근심하니 부자(父子) 이별함이로다  
 요도일성(搖掉一聲)에 흐르는 배 살 같으니  
 일대장강(一帶長江)이 어느덧 가로서라  
 풍편(風便)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행인(行人)이 낙루(落淚)\*하니 내 가삼 뒤편이로다  
 호부(呼父)일성 엮더지니 애고 소리뿐이로다  
 규천호지(叫天呼地)\* 아모런들 아니 갈길 되올소냐  
 범 같은 관차들은 수이 가자 재촉하니  
 할 일 업서\* 말게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구빈고  
 념도록 피히어늘 건노도록 물이로다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제혈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는 무삼일고  
 네 일을 이름이나 내 일을 이름이나  
 가뜩이 허튼 근심 눈물에 적었어라  
 만수에 연쇄하니 내 근심 머금은 듯  
 천림에 노결하니 내 눈물 뿌리는 듯  
 뜨던 말 재게 하니 앞참은 어디메고  
 높은 재 반겨 올라 고향을 바라보니  
 창망한 구름 속에 백구비거(白鷗飛去) 뿐이로다  
 경기 땅 다 지나고 충청도 다다르니  
 계룡산 높은 피를 눈결에 지나쳤다  
 열읍(列邑)의 관문 받고 골골이 점고하여  
 은진을 넘어 드니 여산(礪山)은 전라도라  
 익산 지나 전주 들어 성시산림 들어보니  
 반갑다 남문 길이 장안도 의연하다  
 백각전 벌어지니 종각도 지내는 듯  
 한벽당 소쇄한데 조일(朝日)이 높았세라  
 만가(萬家)골 너른 들에 장천(長天)이 빗졌어라  
 금구(金溝) 태인 정읍 지나 장성 역마 갈아 타고  
 나주 지나 영암 들어 월출산을 돌아드니  
 만이천봉이 반공(半空)에 솟았는 듯  
 일국지명산이라 경치도 조타마는  
 내 마음 어둑하니 어느 겨를 살펴보리  
 천관산을 가리키고 달마산을 지나가니  
 불분주야 몇 날 만에 해변(海邊)으로 오단말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흉용(洶湧)하다  
 가이 업슨 바다이요 한없는 파도로다  
 태극조판 하온 후에 천지광대 하다가늘  
 하늘 아래 없사음이 땅이런가 알았더니  
 즉금(卽今)으로 볼 양이면 천하가 다 물이로다

바람도 쉬어 가고 구름도 멈춰 가네  
 나는 새도 못 다니니 더기를 어이 가잔 말고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난 듯  
 선두(船頭)에 있는 백기 동남을 가리키니  
 천석(千石) 실는 대중선에 쌍돛을 높이 달고  
 건장한 도사공이 배머리에 높게 서서  
 지국총 한 곡조를 어사와로 화답하니  
 마디마다 처량하다 적객(謫客)\* 심회 어떠할고  
 회수장안 돌아보니\* 부운폐일 아니 뵈다  
 나가는 길 어인 일고 무심 일로 가는 길고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을 찾아가니  
 동남동녀 아이어든 방사 서시 따라가랴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루 오르랴나  
 소상강 굶은 비에 조상군 하라는가  
 전원(田園)이 장무(壯蕪)하니 귀거래(歸去來)하옵는가  
 노어회 살졌으니 강동거 하옵는가  
 오호주(五湖舟) 흘러저어 명철보신 하라는가  
 긴 고래 잠간 만나 백일승천 하라는가  
 부모처자 다 버리고 어드러로 혼자 가노  
 우는 눈물 소(沼)\* 되어 대해수를 보타인다

- 안도환, 「만언사」 -

- \* 낙루: 눈물을 흘림.
- \* 규천호지: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짖는 일.
- \* 할 일 업서: 어쩔 수 없이.
- \* 제혈하니: 피를 토할 듯 우니.
- \* 불여귀: 돌아감만 못함.
-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짐잡게 이르는 말.
- \* 회수장안 돌아보니: 한양을 돌아보니.
- \* 소: 연못.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디서 일편혹은 홀연광풍 무삼일고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짓듯 오장육부(五臟六腑) 다 나온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盡)케\* 되겠구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기신(將軍其身)\* 되려니와  
 서풍낙일 떡라수에 굴삼려\*는 불원(不願)이라  
 차역천명\* 할 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리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천리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島中)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太甚)하다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리 뉘 있으리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이로다  
 해수(海水)로 성(城)을 싸고 운산(雲山)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끈쳤으니 인간(人間)은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 집으로 가잔 말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터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家難)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 가 주인(主人)하자 연고 있다 창탈하네  
 이집 저집 아모덴들 적객주인\* 뉘 좋달고  
 관력(官力)으로 핍박(逼迫)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  
 관차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상한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들은 인정(人情) 받고 손님네는 혹언(酷言) 들어  
 구타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田畓) 없고 물속으로 생애(生涯) 하야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옷넝에 장사 가니  
 삼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신경처자 세 식구의 호구(糊口)하기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고 서 불순가 기어 들고 기어나며  
 방 한 간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뛰자리 한 잎 주어 침하에 거주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증생도 하도 할샤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포(別浦)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 안도환, 「만언사」 -

\* 진케: 다하게.

\* 장군기신: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유방

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장수.

\* 굴삼려: 억울함으로 인해 떡라수에 스스로 몸을 던졌던, 초나라의 충신 굴원.

\* 차역천명: 이 일 역시 하늘의 명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를 오게 된 일을 말함.

\* 적객주인: 유배 온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

\* 담박한: 가난한.

\* 청진의: 지네의 일종.

\* 일락하고: 해가 지고.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뜨른 보리밥에 무장땀이 한 종지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옥식진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금의화복 어데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데 전산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굶닐면서  
 한가히 뵈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에 쓸어내니  
 일부는 밥쌀하고 일부는 술쌀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다가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뵈에 들었으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남게 올랐으며  
 천둥할 줄 알았으면 잠든 누에 올렸으며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며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 장기 두었으며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심 하였으랴  
 산진메 수진메와 해동청 보라메가  
 심수총림 숙여 들어 산계야목\* 차고 날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심 나서 형극(荊棘)\*에 걸리었다

- 안도환, 「만언사」 -

\* 옥식진찬: 맛 좋고 귀한 음식.

- \* 맥반염장: 보리밥과 소금, 간장.
- \* 현순백결: 누더기.
- \*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 탐화봉접: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 \* 산계야목: 산평과 들오리.
- \* 형극: 나무의 온갖 가지.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견용: 오랑캐.

어와 민망하다 주인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장에 욕설조차 비경하다\*  
 혼자 말로 군말하듯 나 들으라 하는 말이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政丞)의 아들이요  
 판서(判書)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죄하고  
 절도(絶島)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와 고기낚기 나무베기  
 자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하여다가  
 주인 양식 보태는데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로 이틀 몇날 되되 공한 밥만 먹으려노  
 쓰자 하는 열 손가락 꿈짝이도 아니하고  
 걸자 하는 두 다리는 움직이도 아니하네  
 석은 남게 박은 끝가 전당 잡은 좃대런가  
 종 찾으면 양반인가 빛 받으려 채주(債主)\*런가  
 동이성의 권당\*인가 꽃밭의 친구런가  
 양반인가 상인(常人)인가 병인인가 반편인가  
 화초라고 두고 보며 괴석(怪石)이라 놓고 볼까  
 은혜 끼친 일이 있어 특명으로 먹으려나  
 저 지은 죄 내 아던가 저의 서름 뉘 아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 즈글하고\* 보기에 귀찬하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하다마는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막심하다  
 인륜(人倫)이 없었으니 부자(父子)의 싸움이요  
 남녀를 불문하니 계집의 등짐이라  
 방언이 괴이하니 존객(尊客)\*인들 아올소냐  
 다만지 아는 것이 손뽀아 주먹 험에  
 두 다섯 홀 다섯 못다섯 곱기로다  
 포학과 탐욕이 예의염치 되었음에  
 분전승합(分錢乘合)\*으로 효제충신 삼아있고  
 한둘 공덕으로 지효(至孝)\*로 알았으니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왕화(王化)\*가 불급하니 견용\*의 행사로다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人事)를 책망하라  
 내 귀향 아니러면 이런 모양 보았으랴  
 조고마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눈 먼 줄만 한탄하고 개천 원망(怨望) 안하나니  
 임자 아녀 짓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 안도환, 「만언사」 -

- \* 비경하다: 일이 가볍지 않고 중대하다.
- \* 채주: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 권당: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즈글하고: 씩씩하고.
- \* 해연: 몹시 이상스러워 놀라움.
- \* 존객: 높고 귀한 손님.
- \* 분전승합: 푼돈을 두고 싸우는 것.
- \* 지효: 지극한 효.
- \* 왕화: 임금의 덕행으로 감화하게 함.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떨미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 치기 신 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 보자  
 탈망건 갓 숙이고 흘중치막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현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消日) 조로 가지고서  
 비스비스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자(富貴者)요 오늘 아침 빈천자(貧賤者)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 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 꿈인고  
 한단지보(邯鄲之步)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몽중(夢中) 흉사(凶事)\* 이러하니 새벽 대길(大吉)\* 하오리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사립문을 드자 할가 마당에를 섰자 하라  
 철없는 어린아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리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십오야(十五夜) 상원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 금준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윗다리 아랫다리 석은 다리 헛다리  
 철물(鐵物)다리 판자(板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中村)을 올라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水標)다리  
 효경(孝經)다리 마전(馬廐)다리 아랑 위 것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中學)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요  
 동대문(東大門) 안 첫 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손과 다리 머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 주렴  
 부끄럼이 묻저 나니 동냥 말이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제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이없어 비부(婢夫)\*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서(次序)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혼잣말로 중중하니 주린 중 들어온가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謫客)\* 동냥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제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 안도환, 「만언사」 -

- \* 차면: 얼굴을 가림.
- \* 흉사: 흉하고 언짢은 일.
- \* 대길: 운이 매우 좋음.
- \* 귀양다리: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 고이하다: 괴이하다.
- \* 배반: 술상에 차려 놓은 그릇. 또는 거기에 담긴 음식.
- \* 금시초문: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
- \* 느려치면: 늘어뜨리면.
- \* 비부: 계집종의 남편.
-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 \* 치사: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함.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저렇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갓은 숙여 지려니와 홀 중치막\* 어찌할꼬  
 주변머리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라  
 넓은 소매 구겨 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웁는 듯  
 아무리 굶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하는고야  
 저 주인 거동 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하릴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삼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짚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 보니  
 조희 노도 모르거든 샅기 꼬기 어이하리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내어 놓고 긴 삼대를 베껴 내어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환(千愁萬恨)\* 이내 마음  
 부칠 데 전혀 없어 노 꼬기에 부치었다

- 안도환, 「만언사」 -

- \* 중치막: 남자들이 입는, 소매가 넓고 긴 옷.
- \* 매양: 매 때마다.
- \* 천수만환: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이 소슬하니  
 하목(夏鶯)은 제비(齊飛)하고 추천(秋天)은 일색(一色)일 제  
 황국 단풍이 금수장(錦繡帳)이 되었으며  
 만산초목이 잎잎마다 추성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우니  
 고객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래 돋힌 학이 되어 날아가서  
 만리장천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지고  
 낙락장송 바람 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 달이 되어 비초여나 보고지고  
 북벽사창(北壁紗窓) 세우(細雨)되어 뿌려서나 보고지고  
 추월춘풍 몇몇 해를 주야불리 하옵다가  
 천산만수 머다 머되 소식조차 돈절하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그리움을 견딜소냐  
 어와 못 잊을다 임을 그려 못 잊을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匕首劍)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까지 버히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데 이어 흐르나니  
 물 버히는 칼도 없고 정(情) 버히는 칼도 없네  
 물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 어이하리  
 용문지적(龍門之跡) 가이 없고 옥정지수(玉井之水) 흐리오며  
 상전(桑田)이 벽해(碧海) 되고 벽해가 상전 되나  
 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소냐  
 내 이리 그리운 줄 아오시나 모르시나  
 내 아니 잊었거든 임이 혈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도힐\* 때 있었으니  
 상설이 차다한들 우로(雨露)\*가 아니오랴  
 울음 울어 떠난 입을 웃음 웃어 만나고저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삼 속에 불이 난다  
 간장(肝腸)이 다 타오니 무엇으로 꼬잔 말고  
 끄기가 어려울 손 오장의 불이로다  
 천상수 얻어오면 끝 법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셔가 바타 말이 없네  
 차라리 쾌(快)히 죽어 이 설움을 잊자 하고  
 포구사변(浦口沙邊)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망해투사 하려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적적중문(寂寂重門) 굳이 닫고 천은만상\* 다 바리고  
 불식아사 하려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일각삼추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이할꼬

- 안도환, 「만언사」 -

\* 돈절하니: 끊어지니.

\* 모도힐: 모아질.

\* 우로: 비와 이슬.

\* 천은만상: 세상 모든 것.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비에 개 짓으니 나를 놓을 관문(官文)\*인가  
 반겨서 바라보니 황어 파는 장사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사문(赦文)\* 갖은 관선(官船)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낚는 어선(漁船)이라  
 하로도 열두 시(時)에 몇 번을 기다린고  
 설움 모여 병이 되니 백 가지 병 한데 난다  
 배고파 허기증과 몸 추워 냉증(冷症)이요  
 잠 못들어 현기(眩氣)나도 조갈증은 예증이라  
 술로 드온 병이오면 술을 먹어 고치오며  
 임으로 든 병이오면 임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功名)으로 든 병에는 공명하여 고치잔들  
 활을 맞아 놀란 새가 살바지에 앉자하랴  
 신농씨 꿈에 만나 병 고친 약을 물어  
 청심환 회심단(回心丹)에 강심탕(強心湯)을 먹었은들  
 천준금마 잃은 후에 외양집을 고침이라  
 갖은 성녕 다 배호자 눈 어두운 모양일다  
 어와 이 사이에 해 벌써 저물었다  
 청추가 다 지나고 엄동(嚴冬)이 되단 말까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호노(豪怒)하여  
 산하(山下) 산상(山上)에 백옥경이 되었으니  
 십이루(十二樓) 오경(五景)을 일실(一室)로 통하도다  
 저 건너 높은 뒀에 홀로 섰는 저 소나무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내 이미 알았으니  
 광풍이 아무런들 겁(怯)할 것이 없거니와  
 도채 멘 저 초부\*야 행어나 찍으리라  
 동백화 뿜은 꽃은 눈 속에 붉었으니  
 설만장안에 학정홍과 의연(依然)하다  
 엇그제 그런 바람 간밤의 이런 눈에  
 높은 절(節) 고운 빛이 고침이 없었으니  
 춘풍에 도리화는 도로혀 부끄럽다

- 안도환, 「만언사」 -

- \* 관문: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
- \* 사문: 나라의 기쁜 일을 맞아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던 글.
- \* 초부: 나무꾼.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외박(外泊)하니 설풍(雪風)에 어찌하리  
 보선 신발 다 없으니 발이 시려 어이하리  
 하물며 찬 데 누워 얼어 죽기 편시로다  
 주인의 물역\* 빌어 방 반간 의지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올손가\*  
 벽마다 틈이 벌어 틈마다 버레로다  
 구렁뱀 섞여 있어 약간(若干) 버레 저허하랴\*  
 굶은 버레 주어내고 잔 버레 더러 두네  
 대를 엮어 문(門)을 하고 현 자리로 가리오니  
 작은 바람 가리온들 큰 바람 어찌하리  
 도중(島中)의 나무 모와 조석(朝夕)밥 겨우 짓네  
 가난(艱難)한 손의 방에 불김이 쉬울소냐  
 섬거적 뜯어 펴니 선단(仙緞) 노히 되었거늘  
 개가죽 추켜 덮고 비단이불 삼았세라  
 적무인 빈 방안에 계발 물어 던지드시  
 새우잠 곱송거려 긴긴밤 새와 날 제  
 우흐로 한기(寒氣) 들고 아래로 냉기(冷氣) 올라  
 일흠은 온돌이나 한디만도 못하고야  
 육신이 빙상(氷霜)되어 한전\*이 절로 날 제  
 송신하는 솟대런가 과녁 맞은 살대런가  
 사풍세우 문풍진가 칠보잠의 금나빈가  
 사랑 만나 안고 떠나 겁난 끝에 놀라 떠나  
 양생법을 모르거든 고치(叩齒)\*조차 무삼일고  
 눈물 흘려 베개 젖어 얼음 조각 비석인가  
 새벽닭 뉘뉘우니 반갑다 닭의 소리  
 단봉문 대로원에 대개문 하던 때라  
 새로이 눈물지고 장탄식(長歎息)하던 때에  
 동창이 이명하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 앉아 굶은 다리 퍼올 적에  
 삭다리를 조기는 듯 마디마디 소리 난다  
 돌담뱃잎 앞난초를 쇠똥불에 부쳐 물고  
 양지를 따라 앉아 옷에 이 주어낼 제  
 아니 빗은 혈은 머리 두 귀 밑을 덮어 있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내어 보내고저  
 전전의 깊은 정을 만에 하나 읊기시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척서도 못 전하니  
 초수오산 천만 첩에 내 그림을 뉘 전하리  
 사랑흠다 이 별이야 얼었던 몸 녹는고나  
 백년을 쫓이온들 마다야 하라마는  
 어이 한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아처롭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썰고  
 이 밤을 지내온들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 없거들랑 밤이나 저르거나\*  
 밤이 길거들랑 잠이나 오거나  
 하고 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온 이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이며

목숨이 부지하여 밥 먹고 사라시다  
 인간 만물 삼킨 후의 낫낫치 헤어본들  
 모질고 단단한 이 날밖에 또 있는가  
 심산중 백악호가 모질기 날 같으며  
 독 깨치는 철몽동이 단단하기 날 같으랴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굶\*을 뚫어  
 고모 장지 세살 장지 완자창을 갖초 내어  
 이같이 답답할 제 여단허나 보고지고

- 안도환, 「만언사」 -

- \* 물역: 집을 짓는 데에 쓰는 벽돌, 흙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조희맛: 종이 바른 벽.
- \* 아올손가: 같을까.
- \* 저허하랴: 두려워하랴.
- \* 한전: 오한이 심하여 몸이 떨림.
- \* 고치: 윗니와 아랫니를 자주 마주침.
- \* 몽중사: 꿈속의 일.
- \* 아처롭다: 안타깝다.
- \* 저르거나: 짧거나.
- \* 굶: 구멍.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어찌하리 현마한들 어찌하리  
 세상귀향 나뿐이며 인간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홀로 이 고생을 귀불귀\* 험마하랴  
 무삼 일로 마음 붙여 이 설움 잊자하리  
 작은 낮 손에 쥐고 뒷동산 올라가서  
 풍상이 섰거친 후 만목이 소슬하고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베어 내어 가지쳐 다듬으니  
 밭 가웃 뉘싯대라 호품\*이 되리로다  
 청을치 가는 줄의 뉘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희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릴 때라 뉘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롭다  
 원근산천이 홍일\*을 띄었으니  
 만경창과는 오로지 금빛이라  
 뉘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뉘시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뉘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쥘구나  
 백구야 날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靈物)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갓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閑民)되어 너 좃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나지마라 네 벗이 되오리라  
 백구와 수작하니 낙일\*은 창창하다

- 안도환, 「만언사」 -

- \* 소무: 유배되었지만 절개를 지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 \* 귀불귀: 돌아가지 아니함.
- \* 호품: 품질이 좋음.
- \* 홍일: 붉은 햇빛.
- \* 취어: 물고기를 잡는 것.
- \* 지취: 흥겨움.
- \* 낙일: 지는 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뉘대의 줄 거두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 주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지킨 개는 날 반겨 꼬리친다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랜 줄 가지로다\*  
 짓던 개 아니 짓고 임자로 아는구나  
 반일을 잊은 시름 자연히 고쳐 나니  
 아마도 내 시름은 잊기도 어렵도다  
 강천에 월락하고\* 은하수 기우도록  
 방등은 어데 가고 눈을 감고 앉았는고  
 참선하는 노승인가 통경하는 맹인인가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 소경 누가 본가  
 누은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임이 오라  
 내 험이 무삼 험이 이다지 만흔고  
 남경장사 북경가니 갑절장사 남겼는가  
 북경장사 남경가니 반절 장사 밋졌는가  
 이 험 저 험 아무 험도 그만 헤면 다 헤려니  
 헤다가 다 못 헤니 무한한 험이로다  
 갖없는 미친 설움 늘 찾아 한잔말고  
 남초가 벗이 되니 내 설움 위로하니  
 먹고 떨고 담야 부쳐 한 무릎에 사오대라  
 현기나고 두통하니 설움 잠간 잊히온들  
 오래기야 오렐손가 홀연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삼 일고 내 몸 어이 여기 온고  
 변화고향 어데 두고 적막절도\* 들어온고  
 오량각 어데 두고 두옥반간\* 의지한고  
 안팎 정원 어데 가고 밧고랑의 빈 터이며  
 세살장지 어데 가고 죽창문 달았으며  
 서화도벽 어찌하고 흙바람벽 되었으며  
 산수병풍 어데 가고 갈밭대 들렀으며  
 각장장판 어데 가고 샷자리를 깔았으며  
 경주탕건 어데 가고 봉두난발 되었으며  
 안팎 보신 어데 가고 다목발이 별거하며  
 녹피당혜 어데 가고 육총짚신 신었으며  
 조반점심 어데 가고 일중하기\* 어려우며  
 사환노비 어데 가고 고공이가 되단말고  
 아침이면 마당쓸기 저녁이면 불 때히기  
 별이 나면 쇠똥치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지키기 보리명석 새날리기  
 거처변화 의복사치 나도 전에 하였더니  
 좋은 음식 맛난 맛은 아마 거의 잊었세라

- 안도환, 「만언사」 -

- \* 가지로다: 알겠도다.
- \* 월락하고: 달이 지고.
- \* 적막절도: 적막한 외딴 섬.
- \* 두옥반간: 반 칸짜리 방.
- \* 일중하기: 하루 한 끼를 먹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움에 쌓였으니 날 가는 줄 모르더니  
 혜엄 없는 아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한 밤 자면 설이 오니 떡국 먹고 노자네  
 아해 말을 신청하라\* 여풍과이 들었더니  
 남녘 이웃 북녘 집에 나병소래 들리거늘  
 손을 꼽아 헤어보니 오늘 밤이 제석\*일다  
 타향의 봉가절\*이 이뿐이 아니로다  
 상빈명조에 또 한 해 되는고나  
 송구영신이 이 한 밤뿐이로다  
 어와 상풍 그렇던가 저녁 밥상 그렇던가  
 예 못 보던 네모반에 수저 갖추어 장 김치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 토막 풍성하다  
 그래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난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격년사(隔年事)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正初) 문안 섭섭하다  
 복당 쌍친(雙親)이 백발이 더하시고  
 공구(空閨) 화조(花朝)는 얼마나 늦었는고  
 오 세에 떠난 자식 육 세 아이 되었구나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설움은 서럽다 하리  
 천리일별(千里一別)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一字) 가신(家信)을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雲山)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의창전(依窓前)\* 한매(寒梅)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바닷길 일천 리가 멀기도 하려니와  
 약수(弱水) 삼천 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은하수 구만 리에 오작(烏鵲)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내 가신 어이하야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랴  
 흐르나니 눈물이요 짓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限)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 날 제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산상구적 소리는 소 모는 아해로다  
 자는 새는 투림하여 옛집으로 날아드니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사람은 무삼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고  
 보이는 것이 다 설고 듣는 것이 다 슬프니  
 귀먹고 눈 어두워 듣고 보지 말고 지고  
 이 설움 오랴 줄을 분명히 알 양이면  
 할 일은 결단하여 만사를 잊으리니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일도흔백이야 있을런지 없을는지  
 시비분별이야 있을런지 있을는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서리 칠지  
 의의천의\*를 알기가 어려워라  
 촌촌간장이 구비구비 썩는구나

- 안도환, 「만언사」 -

- \* 신청하라: 신경 쓰랴.
- \* 제석: 선달 그믐날 밤.
- \* 봉가절: 명절을 맞이함.
- \* 의창전: 창 앞에 기대어 있음.
- \* 의의천의: 의심스러운 하늘의 뜻.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간밤에 부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 동군이 춘광을 자랑하듯  
 미쁨손 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지 꽃이로다  
 방초는 처처(處處)한 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수지화는 웃는 듯 하였고나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에 저 봄빛 한 가지요  
 고향 원상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청춘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 노래하여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변화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 날에 눈물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밥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냐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전년 꽃 올해 꽃은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는 다르도다  
 인생고락이 수유잠\*의 꿈이로다  
 이렇저렇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 두고  
 의식 그려 하는 설움 목진 설움 난감하다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춘하추동 다 지나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여름에 하 더울 제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이 하 치우니 도로 여름 생각하네  
 씩우건 망건인가 입으신 철갑인가  
 사시에 하동 없이 춘추만 되었고저  
 발꿈치 드러나니 그는 죽히 견디어도  
 바지 밧 떨어지니 이 아니 민망한가  
 내 손수 깎자하니 기울 것 바이\* 없네  
 애꿎은 실이로다 이리 엮고 저리 엮고  
 고기 그물 걸어매듯 꿩의 눈 얼기매듯  
 침재\*도 그지없고 수품도 사치롭다  
 증전에 적던 식량 크기는 무삼 일고  
 한 술에 요기하고 두 술에 물리더니  
 한 그릇 담은 밥은 주린 범의 가재로다  
 조반석죽\*이면 부가옹 부러하라  
 아침은 죽이더니 저녁은 그도 없네  
 못 먹어 배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기져 눈 깊으니 뒤꼭뒤 거의로다  
 정신이 아득하니 운무에 쌓였는가  
 한 되 밥 쾌히 지어 슬카지 먹고파져

- 안도환, 「만언사」 -

\* 무진무진: 한없이.

\* 수유잠: 짧은 잠.

\* 바이: 전혀.

\* 침재: 바느질하는 솜씨.

\* 조반석죽: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살림을 이르는 말.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천고만상을 아모런들 어찌하리  
 의식이 죽한 후에 예절을 알 것이고  
 기한\*이 작심하면 염치를 모르나니  
 궁무소불위\*라함은 옛사람의 이른 바라  
 사불관면\*은 군자의 예절이오  
 기불탁속은 장부의 염치로다  
 질풍이 분 연후에 경초\*를 아옵나니  
 궁차익견하여는 청운\*에 뜻이 없어  
 삼순구식(三旬九食)을 먹으나 못 먹으나  
 십년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염치를 모를 것가 예절을 버릴 것가  
 내 생애 내 벌어서 구차를 면하니  
 처음에 못 하던 일 나중은 다 배훈다  
 자리치기 먼저 하자 틀을 꽃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뽑내면서 바디를 드놓을 제  
 두 어깨 문어지고 팔과 목이 부러진다  
 명석 한 잎 들었으니 돈 오분이 값이로다  
 약한 근력 강작하여\* 부지런을 내자하니  
 손부리에 피가 나서 조희 골모 얼리로다  
 실 같은 이 잔명을 끊음즉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인명이 지중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누구서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네  
 내 설움 오렐수록 화약이나 아니 될가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이로다  
 상년\*에 뷤던 보리 올해 고쳐 뷤여 먹고  
 지난 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삼 맥혀 못 먹으니  
 뛰는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설움도 남에 없고 못 견덤도 별로하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 년이라  
 흥즉 길함 되올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고  
 하느님께 비나이다 설은 원정(冤情) 비나이다  
 책력도 해 묵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세사도 묵어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천사만사 탕척(蕩滌)\*하고 그만 저만 서용(敍用)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고쳐 잇게 하옵소서

- 안도환, 「만언사」 -

- \* 기한: 추위와 배고픔.
- \* 궁무소불위: 궁하면 무엇이든지 한다.
- \* 사불관면: 사양하여 체면을 지키는 일.
- \* 경초: 억센 풀.
- \* 청운: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강작하여: 억지로 기운을 내어.
- \* 상년: 작년.
- \* 탕척: 죄명을 씻어 줌.